

맑고 아름다운

무궁화의 고장 홍천

강 욱 / 자유기고가

홍천군(洪川郡)은 강원도 땅 한가운데쯤에서 동쪽으로 태백산맥을 팔베개하고서 서쪽으로 길게 드리누운 형상을 하고 있다. 읍한 개와 면 아홉 개 곧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북방면, 내면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동쪽 끝인 내면 광원리에서 서쪽 끝인 서면 동막리까지의 거리가 자그마치 110 킬로미터쯤 되는 데에 전주어 남쪽 끝인 남면 시동리에서 북쪽 끝인 두촌면 장남리까지의 폭은 고작 39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아 땅의 모양이 옆으로 길쭉하다.

그리고 동쪽이 높고 서쪽으로 갈수록 점차로 지대가 낮아진다. 군의 동쪽에 있는 오대산, 방대산, 계방산, 개인산 등은 천사오백 미터가 넘는데 그보다 서쪽에 있는 소뿔산, 가리산 등은 천 미터가 조금 넘고 이 군의 중간쯤에 있는 공작산, 대학산, 오음산 등은 천 미터에 채 못 미치며 서쪽에 있는



팔봉산, 매화산, 금학산 등은 겨우 육칠백 미터 밖에 되지 않는다.

홍천은 자연이 살아있는 지역으로 맑고 투박한 인심을 자랑하는 고장이다. 일찍이 서거정(徐居正)도 “홍천은 민심과 풍속이 순박하고 소송(訴訟)이 간결하다”고 『학명루기(鶴鳴樓記)』에 기록하고 있다. 강원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홍천군은 전국에서 제일 넓은 군으로서 광활한 면적에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설악산으로 향하는 서울-속초간 국도와 춘천-대구간 중앙고속도로 등이 교차하는 중부내륙의 교통의 요충지로 전원 휴양도시 겸 첨단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홍천군의 상징적인 강인 홍천강은 강물이 맑고 경치가 빼어난 곳이 많은 강으로 유명하다. 북한강의 지류인 홍천강은 태백 분수령으로부터 서쪽으로 흘러 홍천읍 시가지를 관통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서 북한강과

함류하고 있으며 강변에 기름진 농토를 일구어놓았다. 홍천의 문화는 홍천강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계승 발전돼 왔다.

가파른 산이 많은 이곳은 전체 면적 1,817km²에서 85%쯤이 산지이고 논밭은 9.4%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도 논보다는 밭이 갑절이나 많다. 산의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개울은 그 언저리에 손바닥만한 논밭을 군데군데에 끼고 대체로 서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북한강의 상류 줄기인 홍천강이 된다.

논농사가 보잘것없는 이곳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에 옥수수, 콩, 호프, 잣, 누에고치, 굴참나무 껍질, 그리고 송이, 표고, 느타리버섯 같은 것이 있다.

그중 이곳의 특산물에서 내세울 만한 것은 잣이다. '인삼찾집'에서 수정과, 쌍화차, 인삼차라는 이름으로 파는 마실거리 위에 한두알쯤 띄워서 생색을 내는 데에 쓰이기도 하는 잣이 이곳에는 흔하다. 특히 화춘면, 두촌면, 서면, 북방면에서 잣이 많이 나는데 그 중에서 화춘면 풍천리 일대의 산은 거의 전부가 잣나무로 덮여 있다. 또한 이 지역 산지에서는 병마개를 만들거나 여자구두의 굽을 만드는 재료인 굴참나무 껍질을 벗겨 소득을 올리고 있다.

홍천읍 내천면 물걸리에서 1967년과 1971년 두 차례에 걸쳐서 통일신라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는 불대좌 및 광배, 삼층석탑,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석조여래좌상, 고려시대의 철불 및 청자 파편, 조선시대의 백자 파편, 암키와, 수키와 등이 쏟아져 나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유물들이 발견된 곳에는 통일신라 때 홍양사라는 절이 있던 것으로 전해오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아직 찾지 못한 실정이다.

보물 제541호 물걸리 석조여래좌상은 광배가 없어지고 얼굴부분은 마멸이 심한 편이다. 머리와 육계의 구별은 불분명하고 둥근 얼굴은 단정한 편이다. 두텁고 투박한 어깨, 평판적인 가슴 등은 양감이 없고 경직된 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단아한 모습이다. 대좌는 상·중·하로 구분되었고 각면에 안상과 보살상, 가륜빈가, 연화문 등이 장식되어 당시의 조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홍천읍 희망리 홍천강변에 있는 희망리 당간지주는 높이 5m의 화강석으로 만든 고려시대의 당간지주로 보물 제80호이다. 주변 경작지에 많은 와편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일대가 옛 절터였음을 짐작케 한다. 약 70cm의 간격으로 두 지주가 동·서로 마주 보고 있으며 내측 면은 물론 외측면, 전후 양면에도 전혀 조각이 없는 소박한 지주이다.

동면 덕치리 공작산 기슭의 소나무 숲에 수타가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절은 신라 성

덕왕 7년(708)에 원효대사가 우적산 아래에 창건한 절로 본디 이름이 일월사였다. 그 뒤에 조선 세조 3년(1457)에 현재의 위치인 공작산으로 옮기고 이름을 수타사로 바꾸었는데 절 이름에 얽힌 전설이 있다.

이에 따르면 절의 이름을 바꾼 뒤부터 해마다 중 한 사람씩이 절 뒤에 있는, 명주 한 꾸리를 다 풀어 넣어도 끝이 닿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올 만큼 깊디깊은 소에 빠져 죽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그러던 어느 해에 이곳을 지나가던 어느 떠돌이 중이 이곳에 중이 빠져 죽는 까닭을 절 이름 탓이라고 했다. 수타사의 이름이 한자로 ‘물 수’자와 ‘떨어질 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음은 그대로 두되 글자를 한자로 ‘목숨 수’자와 ‘비탈 타’자로 바꾸었다고 한다. 이 절의 경내에는 대적광전, 삼층석탑, 홍우당 부도가 있고, 세조 때인 1458년에 만든 책인 ‘월인석보’ 제17, 18권이 보존되어 있다.

서면 모곡리의 보리울 마을에 독립운동가, 언론인, 교육자로 널리 알려진 한서남궁역(南宮轍) 선생의 무덤이 있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나 살다가 쉼 살이 넘어서 이곳으로 옮겨왔는데 홍천군 사람들이 고향을 자랑할 적에 으레 그를 빼놓지 않고 들먹인다. 남궁역은 보리울에 와서 살기 전에 서울에서 서재필과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독립신문의 영어판을 발간했으며 1898년에는 한글과 한자를 섞어서 만든 황성신문을 창간해서 사장 노릇과 주필 노릇을 겸했다.

식민지 시대에 그는 보리울에 와서 예배당을 짓고 모곡 학교라고 이름을 붙이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 학교는 정식으로 허가를 얻지 않았는데도 나라 안에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나라 곳곳에서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그 학생들 중에는 일곱 살 먹은 아이에서부터 서른다섯살 먹은 어른까지 있었다.

남궁역은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에 대항하여 역사교재인 ‘조선어 이야기’를 편찬하여 가르치며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했다. 또한 모곡학교 실습지에 무궁화 묘목을 길러 전국으로 보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깨우치게 하였으며 ‘무궁화 가 이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꽃이 되는데 공헌했다.

홍천에는 공해에 물들지 않은 청정의 관광자원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서면 어유포리에 있는 팔봉산은 해발 302m의 나지막한 산으로 봉우리마다 비경과 기암괴석이 펼쳐져 있다. 또한 산허리를 감싸고 흐르는 맑고 깨끗한 홍천 강물이 넓게 펼쳐진 백사장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절경을 이룬다. 이곳은 국민관광지로 조성되어 등산, 낚시, 야영 등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사시사철 몰려온다.

공작산(孔雀山)은 해발 887m의 명산으로



정상에서 바라보면 홍천군 일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산봉우리에는 맑은 샘물이 있으며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울창한 산림과 깎아 세운 듯한 바위벼랑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골짜기에는 수타사가 있으며 절을 넘어 등산길을 오르면 동면 노천리까지 8km에 걸쳐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비경이 간직되어 있다.

홍천강 유원지는 여름철 가족동반의 피서지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넓은 백사장을 낀 모곡유원지를 비롯해 마곡유원지, 수산유원지 등 강변을 따라 펼쳐진 고운 모래밭 위에 수많은 명승지를 안고 있다.

무궁화공원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홍천읍 연봉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남궁억 시비가 있으며 3.1운동기념비, 충효비, 홍천지구 전투전적비 등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매년 5월 청소년 학생들의 백일장과 사생대회가 개최되기도 한다.

홍천의 별미 음식으로는 ‘양지말 화로 솥불구이’가 유명하다. 전통화로 솥불구이로 홍천산 토종돼지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육질이 연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고추장 양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으며 깔끔한 맛이 난다. 양지말 화로구이의 맛의 비결인 고추장 양념은 15가지의 각종 야채를 믹서에 갈아 고추장과 재래식 된장, 토종꿀을 적당한 비율

로 섞어 재우는 방법으로 만든다.

이 지역의 전통민속주인 옥선주(玉鮮酒)는 뒷맛이 깨끗하고 급제, 숙취, 피로회복, 혈액순환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전해내려왔다. 특히 알콜농도 40%의 증류주로서 연갈색의 청량한 맛과 화하고 독특한 향기를 지니고 있다. 옥선주는 옥수수과 쌀을 3:1 비율로 밀술을 잡고 옥수수 엿물과 2차 삼입하여 증류한 후에 갈근과 당귀를 넣어 성숙시켜 만든다.

한서문화제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로 매년 10월에 열리고 있다. 1977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에서는 무궁화아가씨 선발대회, 민속공연, 농악경연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매년 7월에 개최되는 ‘찰옥수수 축제’는 옥수수 재배왕 선발, 옥수수수요리 개발 경연대회 등의 행사가 있다. ☺